농사 준비하는 寸老

강진군 병영면 하고마을 주민이 고추를 심기에 앞서 규산질비료를 밭에 뿌리고 있다. 규산질비료는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도움을 준다. 〈강진군 제공〉

장흥표고버섯 국제유기인증 획득

日 도쿄 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장흥 표고버섯이 최근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 해외시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남진 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은 "지난 1년간 노력끝에 최근 표고버섯 국제 유기인증(JAS·EU·USDA-NOP)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남진 장흥농협은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에 표고버섯을 출품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현지 바이어 4명이 장흥을 직접 방문해 수출물량을 상담하기도 했다.

정남진 장흥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표고버섯 국제 유기인증 작목반'(6농가)을 조직해 교육 및 현장학습을 통해 표고버섯 전량을 직접 수매해 수출 및 내수시장(대형 유통업체)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작목반은 25.31ha에서 노지재배로 2011년도에 9만본 입식을 포함해 37만본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 2009년도 1월 1일 출범한 APC는 지역특산품을 특화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해 ▲2009년 15억원 ▲2010년 35억원 ▲2011년 50억원의 판매성과를 올렸다.

특히 장흥 표고버섯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대통령 설 선물로 3회에 거쳐 선정됐으며, 2011년에는 일본시장에 5t(시가 3억원)을 처녀 수출했다.

이와 함께 APC는 유치지점 산지경매장 등을 통해 건표고버섯 50t(22억원)을 매입해 생산농가에 가격상승에 따른 간접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www. jnjnh.com)를 개설해 본격적인 전자상거래에 나섰고 홈플러스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표고버섯을 납품하고 있다.

강경일 조합장은 "표고버섯 국제 유기인증 획득에 따라 표고 생산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영암 농공단지, 신규단지 선정

식품특화…2014년 준공

영암군이 식품특화산업 농공단지로 추진했던 영암 농공단지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실사를 통과해 2013년도 신규 농공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읍 망호리 일대 15만㎡의 면적에 총 133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영암 농공단지는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군은 영암 농공단지를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산업 위주의 특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조성예정지는 준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도 13호선과도 인접해 운송력과 접근성이 양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암 농공단지는 현재 대불산단과 삼호산단 등 이미 주요 산업기반이 마련된 서부권과 동부권간 발전격차 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지역고용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자들에게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해 분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화순 '우리맛닭' 15만마리 분양

농진청 복원 재래종…콜라겐·시스틴 등 다량 함유

화순 우리맛닭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현동)은 농촌진흥청에서 재래 토종닭으로 복원에 성공한 '우리맛닭'을 오는 6월까지 총 15만마리를 매주 분양할 계획이다.

'우리맛닭'은 농촌진흥청에서 20여년에 걸쳐 복원에 성공한 재래닭으로, 단백질 '콜라겐'과 닭고기의 풍미를 결정하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시스틴'이 많이 함유돼 있어 쫄깃한 고기 맛이 일품이다.

지난 2010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2011년에 7만마리를 분양해 도시 소비자들로 부터 큰 인기를 받았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리맛닭' 병아리는 백신 처리한 5주령으로 마리당 4500원이다.

'우리맛닭'이 가장 맛있는 시기는 ▲삼계용 생체중 800g(50일 사육) ▲백숙용 2kg(100일사육)이다. 분양한 '우리맛닭'은 6개월 이후부터 알(유정란)을 낳고,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로 깨어난다. 문의(061-375-3003)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장흥군 어촌마을 컨설팅 협약

장흥군은 지난 20일 수문 어촌체험마을, 컨설팅그룹(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김혜영·호남대학교 최우성 교수), 어촌어항협회 4자간에 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어촌체험마을의 관광마케팅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스토리텔링 ▲4계절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발굴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된 어촌체험 마을로 발 돋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운영시 마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체험마을 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담양농협 조합원·주민 '나눔실천' 한마음

담양농협(조합장 박이환)이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나눔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담양농협은 지난달에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농촌마을 경로당 80곳에 난방유 1드럼씩 (총 2160만원)을 공급하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조합원자녀 대학생 30명과 다문화가정 5명, 농협에서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관내 초·중·고교 15개 학교 학생 25명 등 총 60명에게 34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이환 조합장은 장학금을 받는 조합원에게 "농협의 홍보대사가 되어 농협사업을 전이용하고 홍보해 달라"며 "농협의 자체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농협은 지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609명에게 3억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전 북

전주-한스타일진흥원, 순창-게스트하우스, 진안-홍삼제조공장

전북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박차

전북도가 도내 시·군별 미래성장동력사업인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조5000억원을 들여 14개 시·군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핵심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1시·군 1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도는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인재 도 기획관리실장의 주재로 도, 시·군 관계공무원, 전북발전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보고회를 갖고 올해 14개 프로젝트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올해의 경우 전주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을 비롯해 ▲군산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진안 홍삼제조 가공시설 확충 ▲임실 치즈테마파클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 ▲순창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사업이 진행된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 도비를 분산 지원하는 것보다 특색있는 각 시·군 대표사업을 집중 지원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도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단위 사업별로 하드웨어가 속속 착공·준공되는 등 시·군 지역별 선도사업으로 착실히 자리매김 해나가는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시군명	프로젝트명	2012년도 사업명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군산	근대문화도시 조성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근대역사경관 조성
익산	식품전용 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정읍	방사선융합기술산업 밸리 조성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연수관광지 조성
김제	첨단농기계클러스터 조성	농기계 실외험로주행 시험장 구축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 조성	홍삼제조 가공시설 확충
		홍삼가공 현대화 GMP 시설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태권도 실내경기장 건립
장수	말산업클러스터 조성	승마 레저 체험촌 조성
임실	치즈산업 밸리 조성	치즈테마파크 숙박단지 기반시설 조성
순창	장류산업 밸리 조성	게스트하우스 건립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 거점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전북도 한·미 FTA 대응 농기계 면세유 지원 확대

전북도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농업용 로더, 농업용 화물자동차, 사료 배합기 등 농업기계 4종에도 면세유를 공급한다.

농업용 로더는 2t 미만에 한해 면세유를 공급했으나 4t 미만까지 확대 적용돼 연간 1200~1500ℓ 의 면세유를 배정받게 됐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유종에 관계없이 농산물 이동, 퇴비 운송 등 농·축산물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연간 379ℓ (연간 운행거리 3788km)가 지원된다.

볏짚, 보릿짚, 콩깍지 등 농산 부산물을 끓여 사료로 제조하는 사료 배합기는 연간 1000ℓ 가 배정됐다.

해당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에 소재한 지역농협에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확대돼 유류비 절감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주시 임시버스 안내원에 자원봉사자 투입

전주시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임시버스의 안내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 등 14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개인 신청자, 대기봉사자 등 157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근무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했다. 자원봉사자는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버스안내 봉사를 맡게 된다. 전주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3일 파업투쟁에 들어간 데 이어 사측이 20일 직장 부분폐쇄를 단행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민의 날' 축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는 오는 10월 5일 열리는 '제50주년 군산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민참여형 축제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자 4월 10일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50주년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것으로 ▲다수 참여 ▲창의적 내용 ▲군산시 상징성 가미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에 접수하거나 e-mail(bluedia2@korea.kr), 우편(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총무과 시민의 날 담당자)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추진

정읍시가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을 통한 도시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시청과 연지동주민센터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련 국·과장 및 시민, 연지시장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타당성 및 기본 구상(안) 중간보고회'를 2차례 가졌다.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유통환경의 변화로 날로 쇠퇴돼 가는 전통시장을 주거공간과 문화공간, 쇼핑공간을 갖춘 새로운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보건소 모범 음식점 일제 점검

김제보건소(소장 이병칠)는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손님맞이 질서확립을 위해 지난 19~23일 모범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전개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관내 34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병칠 보건소장은 "지도점검시 식품위생법과 위생불량 및 준수사항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군 32억 들여 군립도서관 건립

옛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 추진

순창군은 내년에 32억원을 들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목적 복합시설 갖춘 군립도서관을 건립한다.

순창군은 최근 순창읍 순화리 (구)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자리를 군립도서관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도비 8억원을 포함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군립 도서관은 부지 1729㎡에 건물 연면적 990㎡(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이다. 지하 1층에는 보존서고와 기계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도서정리실·독서실 등이, 2층에는 디지털자료실과 어린이실, 3층에는 열람실, 휴게실, 문화 강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순창지역에는 군립도서관이 없어 관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습득 등 자기계발을 위한 도서문화 환경이 열악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김제 CCTV 통합 관제센터 개소

김제시는 22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청사 2층 346㎡에 'U-김제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